

# 中國 隱逸文化와 士大夫園林의 關係

-先秦時代에서 唐朝까지-

임상섭\* · 조정송\*\*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The Relation Between the Chinese Seclusion Culture and the Gentleman's Gardens

Lim, Sang-Seop\* · Cho, Jung-S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into the relation between the chinese seclusion culture(隱逸文化) and the gentleman's gardens(士大夫園林) by means of the historical and aesthetic approach. The periodic limits of this study is from pre-Qin(先秦) to Tang(唐). For gentleman's gardens in Tang dynasty at once got out of the noble's gardens(貴族園林) which had imitated the imperial gardens(皇家園林) until Tang, and became the origin of the gardens of the literati(文人園林) appearing in post-Tang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pre-Qin period, the origin of the seclusion culture is classified as the metaphysical seclusion(形而上的 隱逸) of Taoism and the physical seclusion(形而下的 隱逸) of Confucianism. Although Pu(圃), Yuan(園), and You(囿) which could be said the first step of the chinese gardens were inquired, the clear relation between the seclusion and them is not found.

Second, during Qin-Han(秦漢) dynasty, the role of the gardens, as the settings of the seclusion, are comparatively minor, too. But Yuan Kuang-Han(袁廣漢)'s garden considerably escaped from that of pre-Qin in the aspect of function,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recreation.

Third, during Wei-Chin(魏晉) and Liu dynasty(六朝), two types of the seclusions emerged. One is the Small Seclusion(小隱), and the other the Great Seclusion(大隱). Though, as formerly, the contemporary gardens did not escaped from the imperial gardens, Shi Chong(石崇)'s garden can be the setting of the Court Seclusion(朝隱). But the Seven Righteous in Bamboos(竹林七賢) and Tao Yuan-Ming(陶淵明)'s settings of the seclusion were real natural environments rather than gardens.

Forth, in Tang dynasty, in spite of relatively low status, Bai Ju-Yi(白居易)'s theory of the Middle

Seclusion(中隱) enabled gentlemen to make seclusion in sinecures unlike the Court Seclus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Middle Seclusion was Zen Buddhism(禪宗) and the State Examinations System(科舉制度) and Bai Ju-Yi's private social position also had an important effect on it.

In Tang dynasty, there being nobiliary gentleman's gardens, Bai Ju-Yi's garden, Lushan Caotangyuan(廬山草堂園), was the setting of the Middle Seclusion. It can be called a real gentleman's garden, for it is simple and small unlike the imperial gardens or the nobiliary gentleman's gardens.

*Key Words : Chinese garden, Seclusion, Middle seclusion, Chinese gentleman*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각 국가의 조경 문화는 인문적·물리적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 차이점과 공통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그 나라의 고유한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 교류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고유한 부분을 연구해야 할 영역이 각 국가별 조경사 연구에 해당할 것이며, 국가간의 전과 및 수용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한국의 조경분야에서의 비교사는 물론이고 중국원림 자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원림에 대한 조경사적 의의와 함께 한·중 원림 비교사의 일조를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은일문화와 사대부원림을 주축으로 이들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王毅의 “중국 봉건사회의 구조에서 은일문화(隱逸文化)의 작용과 지위를 명백히 하면, 중국 고전 원림(園林)이 고도로 발달한 원인을 알 수 있다. 원림은 이미 사대부(士大夫) 은일의 기본적 조건이 되었으며, 또한 은일문화의 전면적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sup>1)</sup>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 있어서 이 양자(兩者)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은일문화의 환경으로서 원림과 원림 및 은일문화의 주체인 사대부에 관한 연구가 중국의 원림을 살피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사

중국원림과 은일문화 관련 연구에서는 岡大路가 은일을 서일(棲逸)과 산거(山居)라는 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다.<sup>2)</sup> 또한 劉天華는 송대의 문인원림이 발달하게 된 중요한 영향 중의 하나로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조은(朝隱)을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sup>3)</sup> 金學智는 위진(魏晉)에서 당조(唐朝)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초은(招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sup>4)</sup> 馬華등은 문화적 차원에서 은사들이 만든 원림이 조경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은사들의 미적 심미관과 미적 정취가 조경 예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sup>5)</sup> 任曉紅은 원림 및 사대부원림에 대한 선종의 영향을 중심으로 은일을 언급한 바 있다.<sup>6)</sup>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먼저 은일문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은일문화는 은일, 은둔, 고독감, 서일 등 각기 다른 용어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원림의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전

1. 王毅(1990) 園林與中國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54.

2. 岡大路(1943) 中國庭園論, 김영빈 역(1988) 대구: 중문출판사: 46~49, 61~64.

3. 劉天華(1989) 園林美學, 云南: 云南人民出版社: 46~48.

4. 金學智(1990) 中國園林美學, 江蘇: 江蘇文藝出版社: 15~18.

5. 馬華·陳正宏(1992) 隱士生活探秘, 강경범·천현경(1997) 중국은사문화, 서울: 동문선: 128~136.

6. 任曉紅(1994) 禪與中國園林, 北京: 商務印刷館國際有限公司: 39~63.

대(前代)의 배경이나 후대(後代)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종적(縱的) 고찰과, 은일문화의 사적(史的) 변천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또한 은일과 은일의 배경을 사상적 측면 혹은 정치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만 국한하여 파악함으로써 당시의 은일에 대한 횡적(橫的) 고찰이 종합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측면, 사상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한 시대의 은일문화 의의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원림사(園林史)적 측면에서 은일문화와 사대부원림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제2장 隱逸文化와 士大夫園林의 개념

은일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에서 ①세상을 피하여 숨는다는 의미와 ②은사(隱士)와 일민(逸民)으로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한 숨은 선비 혹은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지 않고 파문혀 편히 지내는 사람을 뜻한다.<sup>7)</sup> 다시 말해 은일은 은일(隱逸)의 활동 및 은자(隱者)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은일은 주로 은일사상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원림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는 이 은일사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따르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任曉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림예술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양대 문화의 구현이다. 그것의 물질 형태 속에 일정한 문화정신과 미의식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조자와 그 시대가 남긴 문화, 즉 정신의 응집체이다<sup>8)</sup>

즉, 원림은 사상적 측면 외에도 물질적·가시적 요소들로부터 그다지 자유로운 예술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은일사상과 그것과 관련된 물질적·정신적 소산

및 그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의 차원에서 은일문화와 원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은자(隱者), 은일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물질적·정신적 소산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또한 개별적인 은일을 대표할 수 있는 추상적인 의미로서 은일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본래 관료의 계급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토지라는 경제적 바탕 위에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지식인·교양인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대부라는 말이 사용되어 지는데<sup>9)</sup>, 이 계층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후한시대의 지식인이 후세에 일반적으로 '사대부'로서 성격 지워지는 것의 최초의 형태라는 점이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대부의 의미에 따라, 은일문화가 관료와 관련이 많고 중국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전수·유지하는 지식인을 일반적으로 사대부라고 한다면<sup>10)</sup> 은일문화와 관련된 중국의 사가원림(私家園林)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사대부원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귀족원림이 황가원림의 모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문인원림이라 함은 당대에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서<sup>11)</sup> 서정적이고 사의(寫意)적인 원림이며 송원명청의 원림은 이것이 연속·발전하여<sup>12)</sup> 중국 사가원림의 정형화된 형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범위인 선진시기에서 당조(唐朝)에 이르는 중국지배층의 사가원림을 귀족원림이나 문인원림이라 칭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 제3장 唐朝 이전의 隱逸文化와 園林

### 1. 당조 이전의 은일문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보면, “요(堯)가

7. 商務印書館 編(1988) 辭源. 北京: 商務印書館: 1795; 이희승 편(198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283, 1284, 2986.

8. 任曉紅, 전계서, 39~40.

9. 하원주(1989) 송대 사대부론(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 중국사 Ⅲ”). 서울: 지식산업사: 71.

10. 박한제(1994) 후한말 위진시대 사대부의 정치적 지향과 인물평론. 역사학보, 94, 9: 72.

11. 周維權(1990) 中國古典園林史.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85.

12. 任曉紅, 전계서, 50.

허유(許由)에게 양위하려고 하자 허유는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숨어 버렸다”<sup>13)</sup> 라는 내용과 함께 백이(伯夷)·숙제(叔齊)의 고사가 실려 있다.

이 백이와 숙제에 대해 유가와 도가에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논어에서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자는 백이와 숙제이다”<sup>14)</sup>라고 한 반면, 장자에서는 “……이해에 달관하지 못하면 군자가 아니요, 명예를 좇느라고 자신을 잃으면 선비가 아니며……백이·숙제……같은 이는 남의 일을 일삼고 남의 즐거움을 즐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기지 못한 자들이다”<sup>15)</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 차이는 출사관(出仕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논어에서는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가 없는 것이니, 장유의 예절을 폐할 수 없거늘 군신의 의를 어떻게 폐할 수 있겠는가?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자 하여 대륜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그 의를 행하는 것이니……”<sup>16)</sup>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노자의 “영달해도 나타나지 않고, 은거해도 궁색하지 않다”<sup>17)</sup>라던가 장자의 “지극한 즐거움은 세속의 즐거움을 초월하는 것이요, 지극한 명예는 세속의 명예를 초월하는 것이다”<sup>18)</sup>와 같이 세속을 초월한 지락(至樂)의 추구를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장의 철학에서는 백이와 숙제가 은일한 사실 자체에 비판을 가한 것이 아니라, 이해와 명예에 연연했다고 간주하여 비판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장자의 “비록 성인이 산림 중에 거하지 않더라도 그 덕은 숨으며, 덕이 숨기 때문에 스스로 은둔

하지 않는 것이다”<sup>19)</sup>라는 구절은 은자(隱者)의 숨는 장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더욱 형이상적(形而上的)인 “밝음을 나타내지 않고 가리우며, 자취를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sup>20)</sup>와 같은 은자의 정신적 자유로움을 더욱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이와 숙제는 ‘덕을 숨기지 않았으며’, ‘밝음을 나타내어 가리지 않았으며, 자취를 드러내어 숨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가의 철학에서는 항상 현실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형이하적(形而下的)인 백이와 숙제의 은일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백이·숙제와는 달리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정신적으로 자유로웠던 은사인 허유(許由)를 장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유가와 도가의 은일관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잘 나타난 것으로는 전국시대(戰國時代) 굴원(屈原)<sup>21)</sup>의 ‘어부사(漁父辭)’<sup>22)</sup>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굴원이 억울하게 참소되어 유랑생활을 하던 중에 한 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인데, 여기서 백이와 같은 굴원의 은일에 대하여 어부의 말은 도가적 은일을 표방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어부사’의 내용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혹은 ‘주군의 행위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행하는 형이하적(形而下的) 은일과 은일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형이상적(形而上的) 은일이 대립하는 부분으로 후세 사대부들이 유가의 입신양명(立身揚名)과 도가의 정신적 자유라는 두 가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의 발단이 된다.

한대(漢代)에는 서한(西漢)의 회남소산(淮南小

13. 史記列傳, 홍성보 역(1990) 서울: 삼성출판사: 37~39.

14.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論語, 微子)

15. ……利害不通, 非君子也. 行名失己, 非士也……是役人之役, 適人之適, 而不自適其適者也. (莊子, 大宗師)

16. 不仕無義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而亂大倫. 君子之仕也 行其義也……(論語, 微子)

17. 榮而不顯, 隱而不窮. (老子, 詮言訓)

18. 至樂無樂, 至譽無譽. (莊子, 至樂)

19. 雖聖人不在山林之中, 其德隱矣, 隱故不自隱. (莊子, 繕性)

20. 明不形而擯, 迹無爲而藏. (老子, 詮言訓)

21. 기원전 약 343~277년, 전국시대 남방 초(楚)의 정치가(이병갑 편(1995) 중국역사사전, 서울: 학민사: 63).

22. 漁父曰, 聖人不凝滯於物, 而能與世推移. 世人皆濁, 何不 灑其泥而揚其波, 衆人皆醉, 何不鋪其糟而捏其醞. 何故深思高舉, 自令放爲. 屈原曰, 吾門之新沐者必彈冠, 新浴者必振衣. 安能以身之察察, 受物之汶汶者乎. 寧赴湘流, 葬於江漁之腹中. 安能以皓皓之白, 而蒙世俗之塵埃乎. 漁父莞爾而笑, 鼓枻而去乃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濁吾足. (楚辭, ‘漁父辭’)

山)<sup>23</sup> 이 묘사한 ‘초은사(招隱士)’에 산택(山澤)에 은거하는 고통을 강조하면서 은사(隱士)인 왕손(王孫)을 산에서 다시 불러낸다는 내용이 있다.<sup>24</sup> 여기서 초은(招隱)은 은사를 불러 관직을 맡긴다는 것인데, 위진시기에 이르면 초은시는 은자를 만나러 가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은자의 은일 환경에 대한 찬미로 변하고, 더 나아가 은둔을 실천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sup>25</sup>

위진남북조(3~6세기)에는 한대의 통일 정국이 무너지고 유가·경학이 해체되어 사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정국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은일행위가 유행하게 되는데, 당시의 사상적, 문화적 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현학(玄學)적 성향이 짙은 죽림칠현(竹林七賢)<sup>26</sup>을 비롯한 당시 사대부들에게는 전대(前代)의 ‘초은(招隱)’ 개념과는 다른 자연 회귀적인 은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는 사회의 모든 질서가 와해되는 시기였다. 특히 조(曹)씨와 사마(司馬)씨의 정권에 대한 투쟁과 사상논쟁으로 인해 당시 사대부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야 했다.<sup>27</sup>

그래서 보신(保身)의 한 방편으로서 권력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죽림칠현 등—은 아예 정치와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에 반해 권력의 중심에 있던 문벌 귀족들은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이를 극복, 초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은일’이 이용되었다.

즉, 권력 주변부 사대부들이 산 속에서 은일하는

소은(小隱)으로 나타나게 되고, 권력 중심부 사대부들이 사변적 철학인 위진현학과 맥을 같이 하는 대은(大隱)을 하게 된다.

진(晉) 왕강거(王康)의 ‘반초은(反招隱)’<sup>28</sup>이라는 시에서는 산림에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소은(小隱)라 하고, 명리를 다투는 곳에서 정신적 은일을 구가하는 것을 대은(大隱)라 하였다. 마지막 여섯 구에는 대은과 소은의 단점을 대가로 나열하여 결국 ‘만물과 더불어 시종 같이 하세’라고 권유하였다.<sup>29</sup> 즉 초사의 ‘초은사’와 같이 은자에게 속세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같지만 초사에서는 단순히 산림에 은거하는 어려운 점을 말하는 반면, 왕강거의 ‘반초은’에서는 조정이나 저자 거리에서도 은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더 보태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은’이 바로 ‘조은(朝隱)’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에서 말하는 백이·숙제와 같은 ‘소은’은 적막한 산 속 깊은 곳에서 기거하는 것이 요구되었고, 또 금욕청고(禁慾淸苦)한 생활은 술을 좋아하고 호탕한 사대부에게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존의 은일 관념에 변화가 가해져, ‘관직으로 은을 삼고 은으로 관직을 삼는 것(以官爲隱, 以隱爲官)’과 상응하여 자연산수와 세속적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은일 방식인 ‘조은’ 생겨나게 된다.<sup>30</sup>

바로 조은이 당시의 문벌을 이루었던 권력의 중심부 사대부들이 극복해야 했던 ‘관직’과 당시 하나의 풍조였던 ‘은일’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해줄 수 있었던 좋은 매개체였다.

23. 서한(西漢)시대의 사부가(辭賦家) (이병갑 편, 전계서, 569).

24. 金學智, 전계서, 15.

25. 小尾郊一(1962) 윤수영 역(1988) 중국문학속의 자연관.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108.

26. 죽림칠현은 혜강(裒康), 완적(阮籍), 산도(山濤), 향수(向秀), 완함(阮咸), 왕용(王戎), 유명(劉伶)의 칠인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가슴속에 쌓이는 불만을 주체하지 못하여 예교(禮敎)를 배척하며 방탕한 언동을 일삼았다고 한다(김학주(1989)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227).

27. 조송식(1989) 위진현학이 육조 예술론에 끼친 영향. 미학 한국 미학회지 제14집) : 3.

28. “소은(小隱)은 산 중의 수풀 속에 은거하는 것이고, 대은(大隱)은 조정과 저자朝市에 은거하는 것이다. 백이는 수양산에 숨었고, 노담은 주사(柱史) 벼슬 속에 숨었다……만능의 재주는 여러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으나, 편벽한 지혜는 자기에게만 미덥게 하고, 본분을 추구하면 하늘의 조화를 얻을 수 있으나, 천성을 속이면 지극한 도리를 잃으니, 돌아와 바라는 대로 편안히 지내면서, 만물과 더불어 시종 같이 하세. 小隱隱丘藪, 大隱隱朝市. 伯夷竄首陽, 老聃伏柱史……周才信衆人, 偏智任諸己. 推分得天和, 矯性失至里. 歸來安所期, 與物齊終始.”(文選, ‘反招隱’; 심우영(1993) 영가시기의 은일시 연구. 연민학지 93. 4: 262에서 재인용)

29. 상계논문, 263.

30. 劉天華(1989) 園林美學. 云南: 云南人民出版社: 46~47.

## 2. 당조 이전의 은일문화와 사대부원림간의 관계

중국 최초의 원림은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현원(軒轅) 황제가 원포(元圃), 현포(縣圃)의 구조로 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고대 문자 중에 이미 園(園)·圃(圃; 圃와 같음) 등의 표시가 있었고, 주례에 따르면 “원포(園圃)는 과일과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심고,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곳이다”<sup>31)</sup>라고 되어 있으며, 설문(說文)에는 “원은 과일 나무를 심은 곳이고, 포는 채소를 심은 곳이다”<sup>32)</sup> 등의 설명이 되어 있어 원·포는 농업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들이 아는 한 최초의 중국원림 형식은 상은시대(商殷時代)의 유(囿)에서 시작되었다. 시경에서 “유는……천자는 백 리, 제후는 사십 리에 이른다”<sup>33)</sup>, “왕이 영유에 계시니 암사슴과 사슴이 그 자리에 었드려 있다. 암사슴과 사슴이 살찌고 윤택하거늘 백조는 깨끗하고도 회도다. 왕이 영소에 계시니, 아 고기들이 가득히 뛰놀도다”<sup>34)</sup>라고 되어 있다. 삼보황도(三輔黃圖)에 “주문왕의 영대는 장안 서북에 사십 리에 걸쳐 있고, 높이는 이 장이고, 주위는 백이십 보이다”<sup>35)</sup>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로써 중국원림의 출현이 약 기원전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sup>36)</sup>

이렇게 유(囿)에서 비롯된 중국 초기의 원림은 제왕과 귀족 모두 수렵을 행했던 기능적·유흥적 원림 형식이며 일반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후에 원림의 경계를 짓거나, 혹은 담을 만들었고, 천연의 초목과 조수가 자생, 번식, 생육하도록 하여 천연적인 자연경관을 이루도록 하였다 할 수 있다.

사유원림은 한대(漢代, 1~3세기)부터 나타난다.

원광한(袁廣漢)은 북망산(北邙山) 아래에 원림을 축원하였는데 동서가 사 리(里), 남북이 오 리이며 격류(激流)가 그 안에 끌어들여졌고 돌로 산을 만들어 높이가 십여 장(丈), 길이가 수 리에 이른다고 한다.<sup>37)</sup> 원림의 경관 구성요소를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로 나누고, 자연요소는 주로 산과 돌(山石), 물(水體), 식물, 동물 등으로 나눌 때,<sup>38)</sup> 원광한의 원림은 주로 식물, 동물이 주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경관 구성요소의 이용은 고대 원림 유형 중 동물요소가 있는 황제의 원림인 유(囿) 또는 원(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귀족원림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시대는 金學智에 의하면 원림이 독립적인 예술로 발전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은일사상과 자연미 감상 기풍의 팽배라는 정신적인 요소를 들고 있다.<sup>39)</sup> 이 시기의 사가원림은 비록 초기적인 형태의 원림이지만 일단 출현하자마자 두 가지의 경향을 나타낸다. 한 가지는 귀족에게서 나타난 것인데, 대표적으로 관료가 화려함을 숭상하며 기이하고 귀한 것을 다투어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며, 다른 한 가지는 문인 명사의 은일사상으로 나타나는데 후세 문인들의 원림의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전자는 전대 귀족의 원림을 답습하는 단계에 있는 귀족적 사대부원림이라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권력의 주변부에 있던 사대부들의 경제력 부족으로 인해 형성된 은일문화의 환경으로서 실재 자연이라 할 수 있다.

귀족적 사대부원림의 예로는 석숭(石崇)<sup>41)</sup>이 낙양에 축조한 금곡원(金谷園)이 있다. 그는 사귀인서(思歸引序) 중에서 자신이 원림을 세운 것을 “동쪽에서 방일하다(東放逸)”, “숲에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다(好林蔽)”, “소란스러움과 답답함을 피하다

31. 園圃, 樹之果瓜, 時斂而收之. (『周禮』)

32. 園, 樹果, 圃, 樹菜也. (『說文解字』)

33. 囿, ……天子百里, 諸侯四十里. (『詩經』)

34. 王在靈囿, 麇鹿攸伏. 麇麇濯濯, 白鳥皤皤. 王在靈沼, 於擣魚躍. (『詩經』)

35. 周文王靈臺在長安西北四十里, 高二丈, 周圍百二十步. (『三輔黃圖』; 周武忠(1991) 中國園林藝術. 香港: 中華書局: 3에서 재인용)

36. 상계서, 3.

37. 金學智, 전계서, 28.

38. 趙春林(1992) 園林美學概論.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58~59.

39. 金學智, 전계서, 26.

40. 周維權, 전계서, 58.

41. 249~300년, 서진(西晉)의 부호. 문인. 발해 남피(南皮: 하북성) 출신. 시중, 형주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부호로 이름이 높았다 (이병갑 편, 전계서, 213).

(避囂煩)”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은일이라는 사회적 풍조와 거부(巨富)로서의 취향이 섞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sup>42)</sup> 황제의 원림을 모방하던 한대의 원림에서 발전하여 현학적 기풍과 노장적 은일사상이 섞여 ‘동방일(東放逸)’, ‘피효번(避囂煩)’ 등의 말로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대원림이 조은, 대은의 환경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산수시로 유명한 사령운(謝靈運)<sup>43)</sup>은 그의 시(詩)인 ‘산거부(山居賦)’에 거대한 원림을 구축하였다고 쓰고 있는데, 그는 외재적 산수경관의 광대함과 기유(奇幽)함을 추구하였으며 건축도 자연풍경과의 조화를 중히 여기고 산수를 충분히 구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년(晩年)에는 계속 산수만 즐기다가 탄핵을 당할 정도였다.<sup>44)</sup> 이런 사실은 자연의 정취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진한시기 귀족적 사대부원림의 특징인 물질적인 것, 즉 화려하고 기이한 것들을 모으는 일 등에서 더 나아가 산천에서 방일(放逸)하는 정신 활동에 만족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의 장현(莊玄)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sup>45)</sup>

사령운과 같은 시대의 전원 시인(詩人)인 도연명(陶淵明) 역시 은사였으나 사령운과는 달리 전원에서 은일하였다. 그의 귀전원거(歸田園居)<sup>46)</sup>에는 그의 은일관과 원림에 대한 묘사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정원이 은일의 환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任曉紅에 의하면, 이러한 사령운의 산림지은(山林之隱)과 도연명의 전원지은(田園之隱)같은 은일의 장소는 현실적인 원림지은(園林之隱)으로 바뀌게 되며, 원림이 정신적 은일의 장소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사령운과 도연명의 시대에 형성된 것이다.<sup>47)</sup> 하지만 정신적 은일의 환경으로서 원림은 그들이 표방한 것이지, 원림의 규모나 원림주(園林主)의 취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전히 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연명의 전원 환경은 소박한 것이었으나 역시 원림이라기 보다는 실제적 경관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위진남북조와 당대 사대부원림의 중간적 위치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 제4장 唐朝의 은일문화와 士大夫園林

### 1. 唐朝의 은일문화, 中隱

위진남북조라는 혼란기 이후, 수와 당의 통일로 중국은 유례없는 문화적 흥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수당시기(7~10세기)의 과거제도는 중국 지배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 양한시대의 유학의 독보적인 지위는 하락하고 과거제도로 인해 관리의 선발 기준도 경학취사에서 문학취사로 바뀌게 되었다.<sup>48)</sup> 이는 서민에 대한 대폭적인 관로(官路)의 개방을 의미하여 구품중정제로 인해 관료를 독점하는 위진남북조시기의 귀족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요소가 되었다.<sup>49)</sup>

중당시기부터 이런 과거제로 등장한 사대부들에게는 하나의 심각한 모순이 움트고 있었다. 중소 지주 출신인 사대부들은 유학을 제창하고 동시에 자신들도 관료가 되어 뜻을 펼쳐, ‘겸재천하(兼濟天下)’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관계(官界)·이록(利祿)·관계에서의 부침·상하간의 알력 등으로 인해 ‘문으로 도를 나타내는것(文以載道)’를 희망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대의 또 다른 경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독선기신(獨善其身)’이었다. 그 결과 이미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관계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부득이 물러서거나 도피하는 이러한 모순되고

42. 金學智, 전계서, 28.

43. 385~433년, 남조시대 송(宋)의 시인(이병갑 편, 전계서, 182).

44. 任曉紅, 전계서, 46, 130; 김학주, 전계서, 194.

45. 任曉紅, 전계서, 46.

46. 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 誤落塵網中, 一去三十年. 羈鳥戀舊林, 池魚思故淵. 開荒南野際, 守拙歸園田. 方宅十餘畝, 草屋八九間. 榆柳蔭後簾, 桃李羅堂前. 曖曖遠人村, 依依墟里煙. 狗吠深巷中, 雞鳴桑樹顛. 戶庭無塵雜, 虛室有餘閑. 久在樊籠裏, 復得反自然. (歸田園居; 古文眞寶 前集, 전계서, 174~175에서 재인용)

47. 任曉紅, 전계서, 196.

48. 金淸(1990) 科擧制度與中國文化, 강길중 역(1994)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서울: 중문출판사: 53.

49. 유원적(1989) 당 전기의 지배층.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 중국사 II”). 서울: 지식산업사: 227.

이중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sup>50)</sup>

이러한 당대(唐代) 사대부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선종이었다.<sup>51)</sup> 예를 들면, 왕유(王維)<sup>52)</sup>가 도광선사(道光禪師) 아래서 십 년간 좌하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이나,<sup>53)</sup> 백거이<sup>54)</sup>의 초당기(草堂記)에 ‘웃칠한 거문고 하나와 유불도(儒佛道)의 책이 각각 세 짝이 있다’<sup>55)</sup>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 사대부들과 선종의 교류는 광범위한 것이었는데, 선종(禪宗)의 핵심적인 정신은 사대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상에 속박되지 않게 하였고, 사람들이 ‘바깥(外)’을 향할 필요가 없게 하였으며, ‘안(內)’을 향해 자신의 생명 본성을 실현하게 하였다. 이런 측면은 미묘한 정신의 평형 기작을 가능하게 하는데, 외재적 대상의 도움을 빌지 않고 내심의 평형을 얻으며 자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56)</sup>

즉 심산유곡에서 고요히 수양·좌선하는 방식을 완곡하게 부정하면서 ‘연좌(宴坐)’의 방식, 즉 어떤 환경에서든 조용히 앉아 자기의 심신을 노출하지 않으면 되는 새로운 수행방식을 제기하였다.<sup>57)</sup> 부처가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일장 규격 가운데 몸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절대 원성(圓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sup>58)</sup>는 선종 철학은 당대 사대부들이 처한 입장에 적절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당대 사대부들이 처한 입장은 산수화에도 잘 나타나는데, 왕유(王維)는 화학비결(畵學秘訣)에서 산수화의 효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림은 지척(咫尺)의 길이 밖에 안되지만 천리의 경치를 묘사할 수 있고, 동서남북의 방위를 한눈에 앉아서 볼 수 있고, 춘하추동의 계절이 모두 붓끝에서 생겨날 수 있다”<sup>59)</sup> 이것은 당대 사대부들이 관직에서 물

러나지 않고도 은일하는 듯한 기분을 나타내기 위한 방도, 즉 산수화를 통해서 은일의 경지를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문학에서도 사대부들이 지닌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백거이(白居易)의 ‘중은(中隱)’이라는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은(大隱)은 조정과 저자에 머무르는 것이고

소은(小隱)은 산에 숨는 것이다.

산에 올라타리를 치는 것은 아주 쓸쓸하고

조정과 저자는 아주 시끄럽다.

중은하는 편만 못한데

관청에 머물러 은일하는 것이다.

나아간 듯하며 다시 머무른 듯하며

바쁘지도 않고 한가롭지도 않다.

……

천하면 춤고 굶주리고

부귀하면 우환이 많다.

오직 이런 중은사만이 몸이 길하고 편안함에 이른다.

출세하지 못함과 현달함과 빈과 부,

바로 네 가지 사이에 있다.<sup>60)</sup>

백거이의 중은은 왕강거의 대은 혹은 조은의 개념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높은 관직과 상당한 재력을 지닌 사대부의 경우, 몸은 조정에서 정사를 돌보면서 정신은 은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은과 조은의 개념이다.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지녀야 정신적 은일도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당조 이전의 개념이었던 것에 반해, 백거이의 중은은 한가한 관직에서도 정신적인 은일을 구가할 수 있음과 동

50. 李澤厚(1981) 美的歷程, 윤수영 역(1991) 미의 역정, 서울: 동문선: 379~380.

51. 葛兆光(1986) 禪宗與中國文化, 정상홍 등 역(1991) 선종과 중국문화, 서울: 동문선: 65~66.

52. 701~761년, 당대의 궁정시인, 화가(이병갑 편, 전계서, 323~324).

53. 任曉紅, 전계서, 111.

54. 772~846년, 당대 시인(이병갑 편, 전계서, 155~156).

55. 金學智, 전계서, 29.

56. 任曉紅, 전계서, 55.

57. 葛兆光(1986), 전계서, 139~140.

58. 金谷治 등(1967) 中國文化叢書 第2卷, 조성을 역(1986) 중국사상사, 서울: 이론과 실천: 200.

59. 或咫尺之圖, 寫白千里之景, 東西南北, 宛爾目前, 春夏秋冬, 生於筆下. (畵學秘訣; 허영애(1985) 중국의 역대 산수화론과 장자사상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에서 재인용)

60. 大隱住朝市, 小隱入丘樊. 丘樊太冷落, 朝市太囂喧. 不如作中隱, 隱在留司官. 似出復似處, 非忙亦非閑. …… 賤即若凍餒, 貴則多憂患. 惟此中隱士, 致身吉且安. 窮通與豐約, 正在四者間. (白居易集 卷二十二, ‘中隱’)

시에 소은, 산은의 고달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중은의 등장은 백거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당조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여진다.<sup>61)</sup>

당조에 이런 새로운 은일문화가 생겨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 이전의 관료 계급들은 구품중정제에 의해 선발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어느 정도 높은 관직이 보장된 문벌 귀족이었으나, 과거제 실시와 당 중엽 균전제(均田制)의 붕괴 및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중소 지주층의 지식인들이 관료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sup>62)</sup> 하지만 상당히 높은 관직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힘든 것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낮은 관직으로 폄적되는 경우가 있어 과거제도에 의해 관료가 되어도 이전의 문벌 귀족과는 그 입지가 달랐다. 이러한 이유로 사대부들은 중은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야 했다.

한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위진시대의 은사들이 귀족 출신이어서 은일하여도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sup>63)</sup> 과거제로 등장한 당조의 사대부들은 그렇지 못했다. 좌천당하거나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이 여의치 않아도 위진시대 사대부들처럼 훌훌 털고 산으로 숨어들 수는 없었고, 하급관리로 만족하거나 좌천된 상태에서 만족해야 했다.

과거 중국의 사상적 전통에서 차지하는 지위만큼이나 당시의 지식인 계층에서도 깊이 배어 있던 사유방식으로서의 노장 사상 역시 안정적인 사회적 배경에서 사대부들의 입신의 욕구와 모순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 당조의 사대부들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백거이의 중은과 같은 은일문화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은 이론의 배경은 개방적이고 융통성을 지닌 선종이 당조 사대부의 구미에 적합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중은과 사대부원림의 관계

당조에는 유명한 택원(宅園)이 매우 많았는데, 대부분 유명한 문인의 소유였다는 것이 위진남북조의 귀족적인 사대부원림과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이런 당대의 사대부원림은 위치상으로 볼 때 크게 성시택원(城市宅園)과 교외의 택원(宅園)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시택원의 성시는 현재의 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 왕조의 수도인 장안성 내의 대부분의 주택 안에 있는 주택정원을 말한다. 황친 혹은 관료가 만든 것이 많다.<sup>64)</sup>

周維權에 의하면 당대 교외의 택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장원에 딸린 것으로서 관리들을 비롯한 소규모 지주들이 봉록 등으로 받은 자신의 장원 내에 원림을 만들거나 장원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원림으로 삼아 경영한 것이다. 둘째는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며, 풍광이 비교적 수려한 곳에 원림을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전국 각지의 풍광이 수려한 지역에 건치한 것으로 문인 관료들이 끊임 없이 수려한 풍광을 선택하고 그 자연 풍경에 의거하여 별서 원림을 만드는 것이다.<sup>65)</sup>

귀족이나 대관료는 대부분 장안의 동부에 단독적인 원림을 만들고 일반 문인 관료들은 남부에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 장원에 의존한 경우도 있고 단독적으로 건치한 것도 있다. 동쪽에는 대명궁·홍광궁 등 당조의 궁궐과 가까운 귀족이나 대관료의 원림이 많다. 남쪽은 변천(樊川) 일대로서 풍경이 수려하고, 종남산(終南山)<sup>66)</sup>과 가까우며, 많은 계류가 있고 지형은 약간 구릉의 기복이 있다.

장안 부근의 왕유의 망천별업(鞏川別業)은 비교적 이 시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장원에 의거한 별서원이다. 이 원림은 섬서성(陝西城) 남전현(藍田縣)에서

61. 王毅, 전계서, 234.

62. 당대의 균전제 붕괴,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중소지주층의 성장에 대해서는 하원주, 전계논문, pp. 71~125의 논문을 참조.

63. 심우영(1990) 육조 은사 연구 I; 진서 은일전을 중심으로. 상명여대논문집, 90. 8: 8.

64. 周維權, 전계서, 77~79.

65. 周維權, 전계서, 80~81.

66. 종남산(終南山)은 진령산맥(秦嶺山脈)에 속해 있고, 지금의 섬서(陝西) 서안시(西安市)의 남쪽에 있는 산이다(商務印書館 編, 전계서, 227). 이 종남산은 시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관 구성 요소로서 고대 중국인들의, 특히 북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산이라 볼 수 있다.

서남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곡이 바윗살처럼 모여들어 망천(漚川)이라 이름이 붙여졌다.<sup>67)</sup>

이 망천별업은 원래 송지문(宋之間)의 것이었는데, 나중에 왕유의 소유가 되었다. 그의 별장에는 정자와 누대, 누각, 화원, 연못 등 없는 것이 없었고, 학과 사슴을 기르며,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sup>68)</sup>

망천별업에서 기거하면서 이 곳에 대한 시의 모음집인 왕유의 망천집(漚川集) 중 ‘녹채(鹿砦)’의 “빈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사람들 말소리 울림만 들리네. 되비치는 햇빛 깊은 숲 속으로 들어와 다시 파란 이끼 위에 비치네”<sup>69)</sup> 등에서처럼 구체적 산수 형태와 가옥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며, 다만 편안하고 자족(自足)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왕유는 이러한 정신세계에 의거하여 망천별업에서 반관리이며 반은사이자 시인이 될 수 있었으며,<sup>70)</sup> 이러한 왕유의 망천별업은 “도광선사(道光禪師) 아래서 십년간 좌하하고 받은 가르침을 숙여 따랐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선사들과의 교류로 인한 선종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이덕유(李德裕)의 평천장(平泉庄)과 두보(杜甫)의 완화계초당(浣花溪草堂)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별서원이다. 이 원림은 낙양성의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sup>71)</sup> 그는 이 평천장 주위 십리에 백여 개의 대(臺)와 사(臺)를 만들었고, 평생에 걸쳐 각지의 진기한 나무와 꽃, 괴석(怪石)을 원내에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이 평천장은 이덕유의 사유원림이지만 역시 규모 면에서 망천별업과 같이 위진시기의 귀족적 사대부원림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서출신의 이당(李黨)의 당수(黨首)였던 사회적 직분과 재력,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

의 원림에 대한 애호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그 시대에 보편적이었던 선종의 역할을 능가하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황제의 원림 혹은 전대의 귀족적 사대부원림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백거이(白居易)의 여산초당원(廬山草堂園)이 있는데 산에서 풍경이 뛰어난 지역에 만들어진 별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sup>72)</sup> 원화(元和) 연간(806~820년)에 백거이는 강주(江州)의 사마(司馬)로 좌천되어 가서 여산에 초당을 수건하였다.<sup>73)</sup> 이 초당은 아주 소박한 것으로서 당조시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소원(小園)이라고 할 수 있다.

초당기(草堂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 칸에 기둥이 두 개이고, 방이 두 개에 담벽이 네 개다……나무는 쪼개기만 하였고, 단사는 칠하지 아니하였다. 담은 흙손으로만 칠하였고, 석회는 바르지 아니하였다. 계단은 돌을 이용하고, 창문 덮개는 종이를 이용하였으며, 대밭장막은 보기 좋게 걸려 있다.<sup>74)</sup>

이처럼 백거이의 초당은 규모가 작지만, 그는 ‘대나무 숲에 거문고 하나와 연못 위에 술 한 병만 있으면 된다’<sup>75)</sup>라고 시에 적으면서 옛날의 은사(隱士)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강호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이유로 대규모의 택원이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외의 별서원이 아니어도, 작은 연못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고 믿었다. 즉, 적성자족(適性自足)을 느끼기에는 작은 택원(宅園)으로도 족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왕유나 이덕유, 혹은 석승, 원광한, 사령운 등의 화려하거나 규모가 큰 원림은 과거 출신인 중소 지주 출신이라는 입장이나 당시 지방 관리로 좌천되어 있는 백거이의 처지에서는 무리였을 것이며 작은 원림

67. 周維權, 전계서, 81.

68. 馬華·陳正宏, 전계서, 133~134.

69. 空山不見人, 但聞人語響. 還景入深林, 復照青苔上. (‘鹿砦’; 김학주, 전계서, 256에서 재인용)

70. 馬華 등, 전계서, 133~134.

71. 周維權, 전계서, 83.

72. 상계서, 80~81.

73. 상계서, 84.

74. 三間兩柱, 二室四牖……木, 斫而已, 不加丹, 墻, 土而已, 不可白. 磧階用石, 帳窓用紙, 竹簾○想, 率稱是焉. (白居易全集, ‘草堂記’)

75. 竹間琴一張, 池上酒一壺. (白居易全集, ‘閑居偶吟’)

에 만족해야만 했을 것이다.

任曉紅은 중당 이후 문인원림이 정신적 은일 환경으로서 그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졌으며, 점차 사대부 생활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고 말한다. 사회 규범과 개인의 자유, 물질생활과 정신수요, 출사(出仕)와 처은(處隱) 사이의 종종 모순된 관계는 바로 원림에서 조절되어 질 수 있고, 모순된 두 가지가 평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sup>76)</sup> 이러한 의미에서 백거이의 여산초당원은 개인의 출사와 은일이라는 모순된 관계를 해소시켜주고, 전대의 화려한 원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은이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령운 시대의 명산대천을 두루 노닐거나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유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취미와는 크게 다른 것이며, 꽃 한 송이·나무 한 그루 속에 내재하는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백거이의 중은과 관련해 볼 때, 그의 사상과 사상의 실현체인 원림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림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란 원림주(園林主)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원림의 화려함·규모와는 상관없다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백거이의 원림관은 전술했듯이 당대(唐代)의 사대부들에게 영향을 준 선종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재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 혹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선종의 종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제5장 결 론

은일문화는 그 시대의 상황과 사상·예술·개인적 취향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생성, 발전한다. 선진시기의 초기 은일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유가의 형이하적(形而下的) 은일과 도가의 형이상적(形而上的) 은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은일문화의 기원에서 위진남북조의 조은(朝隱) 혹은 대은(大隱)과 소은(小隱)으로 이어지고 당조에 이르러 이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중은(中隱)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당조에 중은의 개념이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일에 대한 사대부들의 동경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고, 정치·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과거제 실시로 인해 중소지주인 지식인층이 관리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지배계급이었던 문벌귀족에 비해 부족한 경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은일이 대두되게 되었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유가적 은일과 도가적 은일의 상충점을 서로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선종이 중은에서 중요한 배경이 된다. 즉 중은의 개념을 살펴보면, 관직에 대한 미련은 유가적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은일에 대한 지향과 처세적인 태도는 도가의 사상이, 그리고 이런 두 가지를 서로 모순되지 않게 포용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은 선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은일문화와 사대부원림의 관계는 처음에는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에서 사대부원림은 황제원림을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시기와 진한시대에는 은일의 환경으로서 원림의 역할은 비교적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에서 출발한 유가적 은일과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한 도가적 은일의 환경이 모두 자연산수였다라는 것은 후대에 원림이 은일의 환경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게 하였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에 이르러서 대은 혹은 조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대부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시 유행했던 은일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이 되었으며, 이 때에 비로소 사대부원림이 은일의 환경으로서 원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황제의 원림을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귀족적 사대부원림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들은 이른바 소은을 하게 되는데, 사령운과 같이 부유한 사대부들의 경우 장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산수원으로 그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황제의 원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도연명 같은 사대부들은 작은 소규모의 정원을 지니게 되는데 주택 주변에 수석이 많이 가해지지 않은 실재적인 경관이라 할 수 있지만 사대부원림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당조(唐朝)에는 규모나 원림 구성요소 측면에서 전

76. 任曉紅, 전계서, 134.

대의 사대부원림을 답습하는 단계인 왕유의 망천별업, 이덕유의 평천장과 함께 소원(小園)의 형태인 백거이의 여산초당원이 나타나게 된다. 그 중 백거이의 원림은 중은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진시대부터 이어지는 은일과 관직이라는 모순을 해결함과 동시에 황가원림에서 벗어나 규모가 작고 소박한 원림이 되었다. 이러한 원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당대의 사상적 흐름과 정치·사회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인용문헌

- 古文眞寶 前集, 김학주 역(1996) 서울: 명문당.
- 老子·莊子, 장기근과 이석호 역(1990) 서울: 삼성출판사.
- 論語集註, 성백효 역주(1995)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白居易全集 I · II, 劉明杰 点校, 北京: 珠海出版社.
- 史記列傳, 홍성보 역(1990) 서울: 삼성출판사.
- 說文解字, 許慎 撰(1995)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 詩經集傳 上·下, 성백효 역주(1994)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周禮正義, 孫詒讓 撰, 北京: 中華書局
- 楚辭, 유성준 해역(1996) 서울: 혜원출판사.
- 岡大路(1943) 中國庭園論, 김영빈 역(1988) 대구: 중문출판사: 46-49, 61-64.
- 葛兆光(1986) 禪宗與中國文化, 정상홍 등 역(1991) 선종과 중국문화. 서울: 동문선
- 金谷治 등(1967) 中國文化叢書 第2卷. 조성을 역(1986) 중국사상사. 서울: 이론과 실천
- 金淸(1990) 科擧制度與中國文化, 강길중 역(1994)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서울: 중문출판사
- 김학주(1989)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 金學智(1990) 中國園林美學. 江蘇: 江蘇文藝出版社
- 劉天華(1989) 園林美學. 云南: 云南人民出版社
- 馬華·陳正宏(1992) 隱士生活探秘, 강경범·천현경(1997) 중국은사문화. 서울: 동문선
- 박한제(1994) 후한말 위진시대 사대부의 정치적 지향과 인물평론. 역사학보, 94. 9 pp. 67-148: 72.
- 商務印書館 編(1988) 辭源. 北京: 商務印 刷書館
- 小尾郊一(1962) 윤수영 역(1988) 중국문학속의 자연관.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 심우영(1990) 육조 은사 연구 I; 진서 은일전을 중심으로. 상명여대논문집, 90. 8: pp. 299-318: 8.
- \_\_\_\_\_(1993) 영가시기의 은일시 연구. 연민학지, 93. 4: pp. 247-267
- 王毅(1990) 園林與中國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유원적(1989) 당 전기의 지배층(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II"). 서울: 지식산업사. pp. 218-254
- 劉天華(1989) 園林美學. 云南: 云南人民出版社
- 이병갑 편(1995) 중국역사사전. 서울: 학민사
- 李澤厚(1981) 美的歷程, 윤수영 역(1991) 미의 역정. 서울: 동문선
- 이희승 편(198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任曉紅(1994) 禪與中國園林. 北京: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 조송식(1989) 위진현학이 육조 예술론에 끼친 영향(미학 한국미학회, 제14집) pp. 5-26
- 趙春林(1992) 園林美學概論.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周武忠(1991) 中國園林藝術. 香港: 中華書局
- 周維權(1990) 中國古典園林史.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하원주(1989) 송대 사대부론(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III") 서울: 지식산업사, pp. 71-125
- 허영애(1985) 중국의 역대 산수화론과 장자사상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